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2일 제3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캠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7~2028년 국가 예산 신규사업 52건 발굴

정읍시가 지난 11일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202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소장 6명과 실·과·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읍의 미래를 견인할 신규 사업 52건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업은 지역 개발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60억원)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287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80억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200억원) △축산약취 개선사업(222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전북도,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한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 방침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예산안 확정 전까지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설 명절 안전하고 편안하게”

## 정읍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14~18일 종합상황실 운영

정읍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6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재해, 산발방치, 의료·방역,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8개 분야에 대한 종합상황반을 편성에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 가스, 화재 사고 및 기축 전염병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반과 기축전염병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직 의료기관과 휴일자킴이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며, 해당 운영 정보는 정읍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 정보포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귀성객의 교통 편의와 쾌적한 명절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읍역과 터미널, 생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구간에 교통 지도 단속 요원을 특별 배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000면을 전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 쓰레기는 설 당일인 17일과 일요일인 15일을 제외하고 정상 수거하며 상하수도 대책반도 상시 대기해 단수나 누수 등 긴급 민원에 즉

각 대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추진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명절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꼼꼼히 챙겨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설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이학수 시장, 시민들과 명절 덕담 나누며·민생 현장 살리기 '온함'

정읍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12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생고을시장, 연지시장, 신대인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소비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각 상인회장과 함께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장을 보러 나



온 시민들과 명절 덕담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이번 합동 장보기 외에도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들이 부서별로 참여하는 '자율적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전통시장 장보기로 활성화 힘 보태

유관기관·지역단체 50여명 참여·시장 이용 홍보활동 진행

고창군이 12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고창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창출장소,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고창지부 등 관내 주요 유관기관 및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시장 이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한 고창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설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인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시장을 찾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환급행사 기간 군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장남에만 운행하던 전통시장 셔틀버스를 행사 기간 매일 운행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방문 RE100 산업용지 전환 공식 건의

권익현 군수,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산업용지 전환 MP 재수립에 반드시 반영해야"

부안군은 지난 10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안군민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군민의 뜻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을 면담하고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산업용지 전환을 건의하며 오는 6월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 반영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10일 개최된 부안군민 총궐기대회는 작년 연말부터 새만금개발청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진 군민 행동이 하나로 결집된 결과"라며 "부안을 살리기 위한 군민의 절박한 의지가 분명히 표출했



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최대 피해 지역인 부안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포함한 부안권역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장은 "부안군민 총궐기대회를 방송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민의 간절함과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조한 '선택과 집중'과 '현실적 여건 고려' 방향에 따라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군의 의견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산업용지 전환이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적 없다”

정읍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 정면 반박

정읍시가 12·3 내란 당시 청사를 폐쇄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읍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학수 정읍시장을 포함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시 정읍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

지 않았으며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설 명절 민생경제 활성화 '집중'

전통시장 장보기·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병행... 소비 촉진 총력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부안 로컬푸드 특별판매장 등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12일 부안 상설시장을 시작으로 줄포상설시장과 품소시장, 부안로컬푸드직매장에서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권익현 군수를 비롯 공무원과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3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농·축·수산물, 생활필수품 등을 구



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했으며 온누리상품권과 부안사랑상품권 사용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도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